

NEWS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세계적 반도체 설계 기업 '퓨리오사시' 광주 온다

도, 소 럽피스킨 백신 일제접종 소규모 농가 공수의 접촉 지원

전남도는 럽피스킨을 전파하는 침파리 등 매개곤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4월 중 도내 모든 소에 럽피스킨 백신 일제접종을 한다고 밝혔다.

렙피스킨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 증상이 나타난다.

2023년 10월 19일 국내에서 첫 럽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매년 발생해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4월 중 도내 사육 중인 모든 소 약 64만 마리를 대상으로 백신을 일제접종한다. 다만 송아지는 90일령 이후에 접종한다. 임신 후반기 소나 아픈 소에 대해서는 접종을 잠시 유예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 바로 접종할 방침이다.

50마리 이상 전염규모 소 약 43만 마리는 14일까지 2주간 농가가 직접 접종한다.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소 약 21만 마리는 30일까지 공수의(120명) 등 수의사를 동원해 접종한다. 다만 구제역 위험도 관리를 위해 영암·무안 방역지역 3km를 제외한 소규모농가와 인접 나주·장흥·강진 3개 시군 소규모농가는 7일부터 30일까지 접종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서버 공급 1위 이슬림코리아도 광주사무실 설립 강기정 "AI 반도체 밸류체인 강화...글로벌 성장"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설계기업(팹리스 기업) '퓨리오사(퓨리오사시)'와 국내 서버 공급 1위 '이슬림코리아'가 광주시와 손을 잡고, 광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국가AI데이터센터가 보유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뿐만 아니라 추론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양산하는 퓨리오사AI를 품게 됨에 따라 광주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퓨리오사(퓨리오사시), ㈜이슬림코리아와 '광주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백준호(㈜퓨리오사)이 대표이사, 윤영태(㈜이슬림코리아) 대표이사, 오상진 인공지능사업융합사업단장,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퓨리오사)이와(㈜이슬림코리아)는 광주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참여해 제품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협력하고, 광주시는 기업의 기

술 개발 및 사업 확장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갖춘다.

특히 국산 반도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엔비디아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시장 여건에서 AI반도체 공급 안정과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퓨리오사)이(퓨리오사시)는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AI시장에서 대한민국 핵심주자로 손꼽히는 기업이다. 지난 2021년 1세대 제품인 워보이(WARBOY)를 개발, 국내 최초로 대규모 양산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대형 언어모델(LLM)의 추론을 가속화하는 레니게이드(RNGD) 칩을 대량 TSMC 등과 협업해 개발했다.

특히 퓨리오사(퓨리오사시) 제품은 비슷한 사양의 엔비디아 'H100'보다 전력효율이 뛰어나 기술력을 인정받고 가격 경쟁력도 좋아 매다. TSMC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에이직랜드를 시작으로 팹리스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백준호(㈜퓨리오사)이 대표이사, 윤영태(㈜이슬림코리아) 대표이사, 광주 인공지능·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며, 퓨리오사(퓨리오사시)는 여섯 번째 협약을 맺은 팹리스 기업이다.

지금까지 유치한 팹리스 기업이 옛지형 반도체에 감정이 있다면, 퓨리오사(퓨리오사시)는 서버형 반도체 개발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5개 팹리스기업이 지역 수요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옛지형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와 거대언어모델, 비전 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설계 전문인 퓨리오사(퓨리오사시)와 협력으로 지역 수요기업의 국산 반도체 공급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IT) 인프라 전문기업인(㈜이

슬림코리아)는 서버 제조 및 공급 분야에 23년간 축적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에 고성능 서버와 스토리지, GPU 장비 공급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서버는 모델의 연구개발과 안정적 운영에 핵심역할을 한다. 이슬림코리아는 광주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업에게 최적화된 고성능 서버와 스토리지 등 안정적인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국내 팹리스 기업과 협력하여 인공지능(AI) 반도체가 탑재된 서버를 공동

으로 개발하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능을 검증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국내의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은 퓨리오사(퓨리오사시)와 국내 정보통신 장비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보유한 이슬림코리아가 광주와 손을 맞잡고 함께 협력하게 돼 광주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두 기업이 광주에서 더욱 성장하고 광주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尹 탄핵심판 선고 방청신청 20석에 수만명 접속 몰려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시민들의 방청 열기도 뜨겁다.

현재는 1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접수가 폭주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신청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후 5시까지 신청을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은 약 3만4000명에 달한다.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이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된다. 당일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

현재 접속 대기 중인 인원만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경쟁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1만900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대 1이었다. 연합뉴스

국토부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 적극 지원"

서삼석 '지원 촉구 건의서'에 공문서 답변 시설보수·특별지원 등 만전... "하반기 가능"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을 비롯해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무안 공항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서에 국토부가 1일 공문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 공항 운영재개 추진 계획 수립, 정기노선 운항 확대와 피해 지역 지원 등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과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담았다.

국토부는 우선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을 위해 공항 안전시설을 조속히 보수하고 안전성 검토 후 재개항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장려금 지급과 시설사유료 감면을

통해 정기노선 취항 및 신규 운항사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운항사에는 운수권 및 슬롯 우대를 통해 재개항 이후 빠르게 여객기 정상 운항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외와 협의해 피해 지역 인근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운항사와 이용객, 인근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앞서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 및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및 운영재개 일정 제시, 정기노선 유치를 위한 대책, 참사 피해 지역 인근 사업장 피해 지원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이용객 90만 명 돌파 후 1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다.

지난해부터는 개항 후 첫 정기노선 취항과 함께 운항 편수도 전년 대비 82% 확대되는 등 활기를 되찾았고, 공항 이용객도 지난 2022년 3.7만명에서 지난해 23.4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공항 운영이 중단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의 이용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입 중단으로 지역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 계획에 따라 3월말에서 4월초에 방위각시설 개선 설계가 시작되고 성능검증과 안전성 검토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올 하반기에는 공항 재개항이 가능할 것"이라며 "무안국제공항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최고로 안전한 공항, 여객과 물류 교류의 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강기정·김영록, 전원일치 인용 결정 촉구 강 시장 "4월 11시 파면"...김 지사 "8대0 확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자,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12·3부터 오늘까지 단식과 행진, 삭발, 농성, 삼보일배, 발삼 시위가 이어졌다"며 그동안의 탄핵 촉구 시위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오전 11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파면'"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달 10일부터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또 지난달 31일 밤에는 퇴근 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로 벌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이 결정되자 "만사지탄이나 환원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바라고 바라던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다"며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8대0 인용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을 전원일치 판결로 심판해 불의한 모든 것을 털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 SNS와 1인 시위, 광화문과 5·18민주광장 집회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탄핵을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작
사기꾼 브로커